

자연서 배우는 불이와 회통

김재일 '생태기행 1·2'

산천과 나는 情의 기록



옛날 노승들은 사미들에게 등불을 켤 때 끈종들이 타 죽지 않도록 불꽃을 잘 감싸야 한다고 가르쳤다. 심지어는 썩은 나무로는 불을 따지 말라고도 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곤충들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이다.

"생명 있는 것들을 위한 자상한 배려, 그것이 불교의 덕목"이라고 말하는 김재일 씨(두레생태기행 대표)가 최근 펴낸 <생태기행 1·2(당대)>은, 옛 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예의를 배우러 생태기행을 떠나자는 간곡한 제안으로 읽힌다.

김 씨는 우연한 기회에 '생태, 생명, 민족정서에 뿌리를 둔 생태기행을 생각해 내고,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함께 94년 두레생태기행이라는 작은 모임을 구성, 매월 한차례씩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하는 생태기행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생

명활동가인 김 씨가 그동안 우리 산천 곳곳을 다니면서 자연과 나는 애뜻한 정서의 기록이다. 이를 통해 김 씨는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물질문명시대의 현대인들에게 생명체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주고, 생명현상에 대한 무지와 몰지각을 깨우쳐 준다.

겨울 산에 지천으로 깔려있는 낙엽들에서도 생명의 순환을 감지하는 김 씨는 낙엽(落葉)을 '낙엽(樂葉)'이라 부르며, 그 낙엽이라는 작은 우주 속에서 재생과 순환의 생태적 사고를 기억해 내게 만든다. 자연의 경계에 들어서면 모든 것이 연기(緣起)요, 불이(不二)며, 원융회통(圓融會通)이라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야산의 나무를 찾아서' 편에서 숲의 종교인 숲, 그 불교 수행의 장소인 절집이 숲을 지키는 마지막 산막(山幕) 역할을 해 왔다고 설명한다. 조선조의 승유역불정책같은 외적 요인이 절을 산으로 들어가게 하는



◇무량포 개펄에서 숲·개미 등 개펄 생명체들을 관찰하고 있는 모습.

계가 되긴 했지만, 오랜 세월동안 절을 지켜온 수행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명산의 숲이 그나마 보존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인사 팔만대장경과 장경각을 통해 가장 자연적인 것이 가장 과학적임을 밝힌다.

'선운산의 가을꽃들' 편에서는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고 산과 들의 꽃과 풀들도 그 이름과 생애를 알지 못하면 있어도 알지 못하고, 사랑할 수도 없다고 말한다. 또 '순천 조계산' 편에서는 영성해 보이는 송광사 해우소의 생태적인 건조방식을 통해, 밥과 동은 불이(不二)라는 주장 아닌 주장을 믿게 되고야 한다.

순도 100% 체험을 근거로 생태적 불교적 시각에서 써 내려간 이 책을

읽는 동안 독자는 "자연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또 다른 모습이며, 생태기행은 사라져가는 또 다른 우리를 만나러 가는 여행이자, 자연을 잃어버린 우리 시대의 문화를 함께 돌아보는 여행"이라는 김 씨의 주장에 공감하며, 자연스레 생태기행에 나서게 될 것이다.

또한 김 씨가 이 책의 뒷부분에 부록으로 첨가한 '올바른 생태기행을 위하여'는 생태기행에 대한 이해와 학습요령, 준비물, 기행 후의 정리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생태기행을 떠나는 이들에게 길잡이로서도 부족함이 없다. 값 각각 1만2천원.

이은자 기자 (ejlee@buddhopia.com)

고은 '히말라야 시편'



詩 117편으로 히말라야 순례

고은 시인이 티베트 여행기를 시로 엮은 <히말라야 시편>(민음사)을 출간했다. 이 책은 1997년 7월, 글쓴이가 중국 시안을 시작으로 둔황, 갈루, 라사, 창탕고원 등 히말라야 일대를 40여 일간 기행하며 느낀 시상을 담아낸 것이다.

'그대 순례'를 시작으로 117편의 시를 담고 있는 이 시집에서 시인은 히말라야의 설산들을 비롯해 청담 고원의 고산 준령 등 예전에 경험치 못했던 대자연의 마력을 노래한다. 또 이 시들에는 혹독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생활과 생태적 지혜를 통해 건강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꾸려가고 있는 티베트 민중들의 삶도 녹아 있다. 책 말미에는 시로 다 노래하지 못한 히말라야의 대자연에 그린 6편의 산문이 실려 있다. 값 6천5백원.

김주일 기자 (jikim@buddhopia.com)

새로나온 책

▲초급 산스크리트 강독(백도수 편저, 연기사)= 고대어인 범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문법해설과 기초 강독 교습서. 전체 3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연성법과 형용사 대명사의 격변화, 동사의 활용변화를 담은 문법해설편을 비롯 기초강독편, 강독 연습편을 담고 있다. 그리고 부록으로 기초문법서, 강독서 등 산스크리트 관련서적과 사전류를 수록했다. 중앙승가대 불전국역연구원 상임연구원 백도수 씨가 엮었다. 값 7천원.

▲대반열반경 1·2(김수 명성님, 현도 운문사 승가대학 대학원, 운문사 승가대학출판부)= 운문사승가대학장 명성 스님이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이 책은 법현 스님이 한역한 <대반열반경>과 비교하여 36권 25품의 <대반열반경>을 현도한 것이다. 1권은 제1 서품부터 제21 영아행품까지이며, 2권은 제22 광명편조고귀약보살품부터 후분 성구곡운품까지이다. <열반경> 검토본 출간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2권 6만원.

▲그렇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된다(박태근 지음, 박문당 옮김, 도솔)=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 갈등 등의 문제를 없애는 방법(시각화)을 소개하고 있다. 글쓴이가 말하는 시각화 기본방법은 원하는 것을 마음 속으로 떠올린 뒤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고 떠올린 소망이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마음속에 그린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이다. 이 책이 강조하는 것은 '내 인생을 방해한 건 내 생각'이라는 것이다. 값 6천9백원.

▲배를 다스리면 민병을 고친다(윤대규 지음, 다우)= 지압(指壓), 수기(手氣), 침(針)을 동시에 시술하는 것이 지압수침요법이다. 이 요법은 인체의 기 순환을 가장 적절한 상태로 정상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에서는 복부의 오장육부 부를 직접 다스려 질병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을 실고 있다. 값 8천5백원.

▲동양인의 체질에 맞는 멀티테라피 새 그림치료(장성철 지음, 차성희 역음, 북하우스)= 서양의 미술심리치료요법에서 탈피, 환자의 정신적인 치료와 육체적인 치료의 시너지 효과를 담고 있다. 동양의 오행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책은 실제와 이론을 겸비한 지침서이자 연습서이다. 특히 3장 '판독과 치료의 실제'는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 값 1만8천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법구경(장영경전)	지 현	민족사
2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3	전통사찰음식	적 문	우리
4	영가천도	우 룡	효림
5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알라이라	문이당
6	산가귀감	박 현	바나리
7	5백6일 명상체험기	김 남 선	불광
8	지대방 이야기	송사경원	범공양
9	지장신앙 지장기도법	김 현 준	효림
10	부처님 말씀	성 열	현암사

도서 안내: (02)737-0695

서로 상처 보듬으면서 찾은 나

송기원 구도소설 '또 하나의 나'

소설가 송기원 씨(53)가 인도기행을 토대로 한 두번째 장편소설 <또 하나의 나>(문이당)를 출간했다. <안으로의 여행>에 이은 연작형식의 이번 소설은 '나'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철저히 자신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구도소설이다. 인도 북부지역에서 네 팔에 걸친 히말라야 일대의 장대하고 다채로운 풍광을 배경으로 내면 탐색의 여정이 심도 있게 펼쳐진다.

주인공 '나'는 인도 북부지방을 여행하는 중에 홀로 트레킹 하던 한 국여자 임영아를 만난다. 그녀는 16세에 윤간(輪姦)을 당한 뒤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숲에서 전전하다 삶의 밑바닥에 이르러 인도로 떠나는 여인이다. 이 여자와의 만남과 사랑을 통해 자신 속에 존재했던 '또 하나의 나'를 만나게 되고 새로운 차원의 '진정한 나'를 찾

는 것이 이 책의 기동줄거리이다. 모든 것을 접어버린 듯한 자유로움과 초라함, 음식에 코를 막고 아



달라이 라마 영국 강연내용 '책으로'

'삶의 네가지 진리'

<달라이 라마, 삶의 네 가지 진리>(송)는 달라이 라마가 영국 런던 비비칸 센터에서 강연한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지금까지의 강연집들이 대부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개론적이고 광범위한 주제를 다뤘다

면, 이 책은 불교의 기본교리인 '사성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다룬 게 특징이다. 달라이 라마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 것도 없는 무(無)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가져온 원인들과 여러 조건들이 결합해서 만든 결과"라며 고통의 원인을 알고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

가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말한다. 달라이 라마의 사성제 강연을 듣다보면 머릿속을 맴돌 뿐 윤곽이 잡히지 않던 그 깊고 오묘한 진리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율군이 주민환 박사(동국대 인도철학과)는 국내에서 몇 안 되는 티베트불교 전문가로 1989년부터 10년 동안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 머물며 티베트불교를 공부했다. 값 7천9백원. 권형진 기자(jinny@buddho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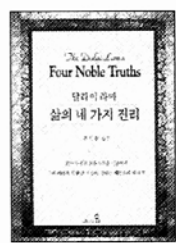
『개원석교록』 『일체경음의 2』
한글대장경 새책 두권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한글대장경 <개원석교록>과 <일체경음의 2>가 나란히 출간됐다.

<개원석교록>은 당나라 지승 스님(668~740)이 편찬한 일체경의 목록이다. 모두 20권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은 총·별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총록은 1권에서 10권까지 10권으로 '총괄군경록'이라고 한다. 11권에서 20권까지 10권의 별록은 '분별승록'이라고 한다.

<일체경음의 2>는 여러 불전에 나오는 불교용어사전으로 11권 <대보적경>부터 20권 <대방광불화엄경>까지 모두 61경의 용어를 해설하고 있다. 값 각각 1만5천원.

김종근 기자



설기문 지음 / 값 8,500원 • 전국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전생가기 참 쉽다

설기문
동아대 교수 · 미국 공인 최면 전생 치료사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미국 인터내셔널 대학교 상담심리학 박사,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 객원 교수 역임.
KBS TV <미스터리 추적>을 포함한 다수의 TV 프로그램에 출연.

● 전생을 알고 나면 → ● 몸과 마음의 고질적인 문제가 풀린다. ● 세상이 전과 다르게 보인다.

738-0931

유명한 사람들의 전생 이야기

데이비드 벤슨 / 서민수 옮김

그들이 유명하게 된 까닭은?

●정주영
중국 수왕조 시대 대운하 공사 감독관
1300년대
태국 부농 집안의 수장
1800년대
중국 광둥의 상인

●김대중
세종 시절의 학자
1700년대
네덜란드에서 출생
태국 부농 집안의 수장
1800년대
필리핀에서 출생

●박정희
고려말 최의의 환생

●전두환
고려말 최송헌의 환생

전생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 왜 어떤 사람은 실패를,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할까?
- 부부는 어떻게 만나게 되나?
- 천재들은 어떤 진화의 경로로 태어나는가?
- 유학자들은 정치인·목회자로 많이 환생했다.
- 외국인이 어떻게 한국인의 전생을 보았을까?
- 이미 바티칸 신학자의 50%가 율회를 믿고 있다.

세계 유명 인사 40인 포함

문선명, 존 레논, 브루스 리, 칼립 지브란, 에머슨, 스티븐 킹, 괴테, 칸트, 헤겔, 베이컨, 디즈니, 폭 필러, 처칠, 고르바초프, 엘리자베스, 빌리 그레이엄, 키신저, 윌리엄 셰익스피어